

맥컬리 컬킨 “늙은 기분을 느끼고 싶어?”



▲ 맥컬리 컬킨 트위터 캡처

영화 ‘나 홀로 집에’ 시리즈에 출연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배우 맥컬리 컬킨이 40번째 생일을 맞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늙은 기분을 느끼고 싶어? 나 40살이야.”라며 장난기 넘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맥컬리는 지난 26일 트위터에 “40세를 맞아 중년의 위기가 시작됐다.”며 “서핑을 하러 갈까 생각 중이다. 추천할 만한 것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또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다. 모든 사람이 늙는 기분을 느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제 저는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라며 자신의 얼굴을 레슬링 선수 몸에 합성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1980년 8월 26일에 태어난 맥컬리는 1990년에는 영화 ‘나 홀로 집에’에 출연해 세계적인 배우가 됐다. 그는 이후에도 ‘나 홀로 집에’ 후속작에 출연하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그는 성인이 된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코미디 록 밴드 ‘피자 언더그라운드’ 그룹을 결성했지만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며 힘든 시기를 보냈다.

긴 시간 동안 공백기를 가진 맥컬리는 곧 드라마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시즌10에서 캐시 베이츠와 호흡을 맞추며 복귀할 예정이다.

슈퍼엠, 두 번째 정규 싱글 앨범 ‘호랑이’ 공개



▲ 슈퍼엠 ‘호랑이’ 티저 이미지. 사진=SM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 그룹 슈퍼엠(SuperM)이 첫 정규앨범의 두 번째 선공개 싱글 ‘호랑이’ (Tiger Inside)를 내놓는다.

지난 26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슈퍼엠은 다음 달 25일 첫 정규앨범 ‘슈퍼 원’ (Super One) 발매를 앞두고 8월 1일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호랑이’를 선공개한다. 앞서 지난14일에 첫 싱글 ‘100’ (헌드레드)를 선공개한 바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호랑이’는 맹수의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떠올리게 하는 신시사이저 등으로 동양적인 테마를 풀어낸 댄스곡”이라며 “‘모두에게 숨겨진 내면의 야수성을 끌어내 힘든 일을 극복해내자’는 내용을 가사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슈퍼엠은 샤이니 태민, 엑소 백현과 카이, NCT 127의 태용과 마크, 중국 그룹 웨이션브이의 루카스와 텐 등 SM 소속 보이그룹 멤버 7명이 모인 연합팀으로 미국 유니버설뮤직그룹 산하 레이블인 캐피틀뮤직이 SM과 손잡고 북미 시장에 선보인 바 있다.

셀레나 고메즈, 블랙핑크 협업곡 ‘아이스크림’ 홍보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가 지난 28일 ‘아이스크림’을 공개했다. 지난 6월 26일 공개돼 K팝 각종 신기록을 썼던 ‘하우 유 라이크 댓’ (How You Like That·HYLT)이후 2개월 만으로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넘어설 지 관심이 쏠린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팝스타 셀레나가 피처링했다. 고메즈는 미국 디즈니채널이 발굴한 10대들의 워너비에서 글로벌 톱스타로 성장한 가수 겸 배우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만 약 1억8,600만 명에 달하는 그녀는 엔터테인먼트뿐 아닌 패션·뷰티 등 다양한 분야의 트렌드를 이끄는 스타다.



▲ 고메즈의 개인 컷이 담긴 ‘Ice Cream’ D-2 포스터. 사진=YG엔터테인먼트

무엇보다 뮤지션으로서 존재감을 인정받고 있다. 2009년부터 음악 활동을 시작해 꾸준히 성장해온 그는 2014년 라디오디즈니 뮤직어워드에서 올해의 노래상, 2016년 아메리칸 뮤직어워드에서 최우수 여자가수상 등을 받는 등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고메즈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Selpink’ (셀레나 고메즈와 블랙핑크를 합한 말)라는 단어와 사진을 잇달아 올리며 곡을 홍보하고 있다.

YG는 블랙핑크와 고메즈가 “서로의 오랜 팬”이었다고 전하면서 신곡에 대해 “무더운 한여름에 잘 어울리는 매우 시원한 음악”이라고 소개했다.

숫자퍼즐 정답

8	1	4	9	6	7	3	2	5
3	5	9	1	2	8	4	6	7
2	6	7	5	3	4	9	1	8
4	8	1	7	9	5	6	3	2
5	2	6	3	8	1	7	9	4
7	9	3	2	4	6	8	5	1
1	3	5	8	7	9	2	4	6
9	4	8	6	5	2	1	7	3
6	7	2	4	1	3	5	8	9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싣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E-mail: info@townnewsusa.com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